

#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대하여

세명대학교 金洪均

## Historical Concideration of 「Yuk Dae Eui Hak Sung See」 in 「Eui Rim Chwal Yo」

Kim Hong-kyoon

The flamboyant progress of Korean Medicine in Mid-Chosun dynasty was possible with the existence of 『Eui Rim Chwal Yo』 and further more, it formed a main frame of 『Dong Eui Bo Gam』. Following results were lead to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Yuk Dae Eui Hak Sung See」, a chapter of 『Eui Rim Chwal Yo』. As well as 「Yuk Dae Eui Hak Sung See」 of 『Eui Rim Chwal Yo』 took the same chapter of 『Eui Hak Ip Mun』 as a main frame, it contains profiles of historic doctors and their clinical reports so that next generation doctors could follow, and furthermor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Korean Medicine History, not to speak of 「Yuk Dae Eui Bang」 of 『Dong Eui Bo Gam』.

---

### I. 序論

조선 중기의 한국 의학은 또 다른 격동기<sup>1)</sup>를 맞이하고 있었다. 『東醫寶鑑』의 완성(1610년)을 앞두고 의학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醫林撮要』가 바로 그것

---

1) 拙著,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3쪽.

이라 하겠다. 이 무렵, 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실력자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太醫 楊禮壽와 李命源을 위시하여 儒醫 鄭礎, 內醫 金應鐸, 鄭禮男, 許浚 등<sup>2)</sup>은 鄭敬先<sup>3)</sup>의 의학을 물려받아, 明宗과 宣祖를 등에 업고 ‘東醫學의 定立’이라는 旗幟아래 일대 革新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은 國初부터 있어 왔던 우리 의학의 自主化와 세계 의학에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대대적인 작업을 벌여 왔던 鄉藥事業과 『醫方類聚』의 완성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明代의 의학을 재빠르게 흡수하여, 우리 醫學化의 巨步를 내딛고 있었던 것이다. 虞搏의 『醫學正傳(1515년)』이나 李梴의 『醫學入門(1575년)』, 그리고 龔廷賢의 『萬病回春(1587년)』 등과 같은 훌륭한 醫方書들이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켰고, 특히 楊禮壽는 이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그 대표적인 著作이라 할 수 있는 『醫林撮要』는 『東醫寶鑑』의 직접적인 母胎가 되었고, 宣祖의 命에 따라 侍醫長이었던 楊禮壽의 지휘 아래, 許浚은 나중에 이 시대 가장 걸출한 作品이라 할 수 있는 『東醫寶鑑』의 완성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듯 조선 중기 의학의 찬란한 업적을 가능케 하였던 『醫林撮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論者는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를 통해, 이것이 醫書의 가장 앞부분에 놓여짐으로서 가지는 의사학적 가치를 분석하여, 후대의 의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 II. 本論 및 考察

- 2) 이들 가운데 누가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을 주도해 나아갔는지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鄭礎은 儒醫였고 李命源과 楊禮壽가 太醫였으며 나머지는 內醫로서 함께 일하였지만, 이 가운데 楊禮壽가 醫術뿐만 아니라 나이로서나 內醫院에 근무한 年限으로서나 단연 선배인 격이므로, 侍醫長으로서 실제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 3) 鄭敬先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의 「歷代醫方」(許浚, 『東醫寶鑑』, 71쪽)에 “醫林撮要 本國內醫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이라 되어 있고, 藝閣冊都錄과 西庫藏書錄에 “醫林撮要 八卷 本朝 鄭敬先著”라 밝히고 있으며, 三木榮도 畑黃山の 『醫學院學範』을 인용하여 “醫林撮要 八卷 內醫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三木榮, 『朝鮮醫書誌』, 84쪽)라 하고 있어 鄭敬先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鄭敬先이 『醫林撮要』를 지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楊禮壽는 이러한 관계에 따라 鄭敬先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楊禮壽의 영향아래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히 鄭敬先의 영향아래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

‘歷代醫學姓氏’가 책의 편집에 등장하는 것은 唐代의 醫史學家라 할 수 있는 甘伯宗에 의해서 처음 등장<sup>4)</sup>하게 되는데, 이는 唐代 以前의 歷代 醫家 120인의 傳記를 모아 『歷代明醫姓氏』<sup>5)</sup> 7卷을 撰한 것으로, 중국 고대의 伏羲氏로부터 唐代까지의 醫學에 밝은 사람들을 모은 人物傳記 전문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佚失되어 그 모습을 알 수 없다.<sup>6)</sup> 그 후로 여러 차례 등장이 있다가 醫方書와 合本으로 등장한 것은 熊宗立의 『名方類證醫書大全』에 별도로 「醫學源流」를 附記하기 시작하고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醫方書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여 의학의 본론으로 들어가지 전에 의학의 역사를 먼저 다루기 시작한 것은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sup>7)</sup>에서 처음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후 우리 나라의 醫方書에도 그 영향을 받아 이러한 ‘歷代醫家’의 記述이 몇 차례 등장하게 된다.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sup>8)</sup>나 『東醫寶鑑』의 「歷代醫方」<sup>9)</sup>이 그러하고, 朝鮮後期の 丁茶山の 『麻科會通』에 나오는 「抄撮諸家姓氏書目」<sup>10)</sup>이 그러하다. 이러한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의 형식은 『醫林撮要』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이 후에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醫家’보다도 ‘著述’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 그 역사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공통된 추세이자 필연적 사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그 기록된 상황과 유사점 및 상이점을 찾아봄으로써, 상호간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

옛 醫人 215명을 上古聖賢, 儒醫, 明醫, 世醫, 德醫, 仙禪道術 등의 여섯 부류로 나누어 각기 그들의 이름 밑에 字와 號를 기록하고, 그들의 저서와 업적 및 임상사례를 들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上古聖賢’은 醫藥으로써 사람의 생사를 다스린

4) 李經緯, 『中醫人物詞典』, 84쪽.

‘唐醫史學家. 集伏羲至唐, 歷代醫家一百二十人之傳記爲『名醫傳』七卷(『宋史』稱『歷代名醫錄』). 是我國最早的醫史人物傳記專書, 已佚. 『歷代名醫蒙求』等書有引錄.’

5) 앞의 주에서 보다시피 宋代의 周守忠이 撰한 『歷代名醫蒙求』에 의하면 『名醫傳』(『宋史』稱『歷代名醫錄』)이라 하고 있어 冊名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3쪽.

7) 李 梴, 『原本編註 醫學入門』, 131~188쪽.

8) 楊禮壽,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 8권, 3~63쪽.

9) 許 浚, 『東醫寶鑑』, 序, 69~71쪽.

10) 丁若鏞, 『麻科會通』, 韓國醫學大系, 36권, 193~196쪽.

三代 이전의 醫藥을 創始한 聖君과 賢相<sup>11)</sup>을 얘기하고 있으며 모두 13명이다. ‘儒醫’는 秦漢 이후로 經전에 달통하고 역사에 박식하며 몸을 가지런히 하고 行동을 삼가며 聞人과 鉅儒이면서도 의학에 通달한 사람<sup>12)</sup>을 말하는데 모두 41명이다. ‘明醫’는 의학에 대하여 그 밝힘을 극진히 한 사람<sup>13)</sup>이니 모두 98명이다. ‘世醫’는 醫術을 主業으로 삼아서 世代로 서로 이어온 사람<sup>14)</sup>이니 모두 26명이다. ‘德醫’는 ‘明醫’와 ‘世醫’ 가운데 德이 있는 사람<sup>15)</sup>이니 모두 18명이다. ‘仙禪道術’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기록하였는데 모두 19명이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중 한자로 표기된 사람들은 『醫學入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한글에 밑줄로 표기된 사람들은 『醫學入門』에는 없지만 『醫林撮要』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표시한 것이다.

#### 上古聖賢

伏羲氏, 神農氏, 黃帝氏, 僦貸季, 岐伯, 伯高, 少俞, 鬼臾區, 俞跗, 桐君, 雷公, 巫咸, 伊尹.

#### 儒醫

張機, 皇甫謐, 裴頌, 范汪, 殷仲堪, 殷浩, 徐熙, 褚澄, 王顯, 徐之才, 孫思邈, 狄梁公, 王績, 孟詵, 陳藏器, 許胤宗, 許叔微, 鄭樵, 紀天錫, 楊文修, 李惟熙, 麻九疇, 劉完素, 張元素, 李慶嗣, 李杲, 王好古, 滑壽, 葛乾孫, 呂復, 周眞, 黃子厚, 朱震亨, 盛寅, 周敷, 劉溥, 汪機, 程明祐, 陳景魁, 劉純, 王綸.

#### 明醫

扁鵲, 淳于意, 郭玉, 醫緩, 醫和, 文摯, 華佗, 紀朋, 范九思, 于法開, 任度, 莫君錫, 張苗, 唐慎微, 王叔和, 馬嗣明, 姚僧垣, 姚最, 李修, 巢元方, 韋訊, 元珠, 王冰, 진무택, 張鼎, 張文仲, 蕭炳, 楊損之, 陳士良, 于志寧, 甘伯宗, 孫兆, 王纂, 龐時, 朱肱, 吳廷紹, 許希, 趙自化, 陳文中, 宋道方, 僧智緣, 皇甫垣, 王克明, 張銳, 郝允, 王昺, 송태중, 楊介, 孫琳, 劉元賓, 程約, 張濟, 唐與正, 潘璟, 劉從周, 僧奉眞, 周順, 趙巒, 왕도, 石藏用, 趙卿, 杜任, 竇太師, 成無己, 張從政, 羅天益, 吳恕, 直魯古, 危亦林, 徐文中, 王仲光, 葛應雷, 項昕, 趙良, 王履, 周漢卿, 張頤, 錢瑛, 劉遵道, 吳傑, 殷溥, 汗忱, 倪維德, 呂復, 이친, 胡重禮, 沈繹, 何彥微, 黃<sup>16)</sup>, 陸彥功,

11) 李 梴, 앞의 책, 131쪽. “三代以前 聖君賢相 劫爲醫藥 以濟死生者也.”

12) 李 梴, 앞의 책, 132쪽. “秦漢以後 有通經博史 修身慎行 聞人鉅儒 兼通乎醫.”

13) 李 梴, 앞의 책, 151쪽. “醫極其明者也.”

14) 李 梴, 앞의 책, 174쪽. “以醫爲業 世代相承者也.”

15) 李 梴, 앞의 책, 179쪽. “乃 明醫世醫中之 有德者.”

陶華, 鄒福, 熊宗立, 王時勉, 張至和, 劉毓, 양새, 汪渭, 劉全備, 虞搏, 方廣, 薛己, 程伊.

#### 世醫

樓護, 徐秋夫, 徐道度, 徐叔嚮, 徐寔, 徐踐, 徐雄, 徐之範, 徐敏齊, 褚該, 許智藏, 許澄, 甄權, 甄立言, 江哲, 劉翰, 張擴, 張揮, 徐樞, 徐彪, 程明助, 殷渠, 蔣武, 祝仲寧, 顧俊, 許國禎, 공신, 공징현.

#### 德醫

徐文伯, 徐嗣伯, 錢乙, 楊士瀛, 劉潤芳, 吳源, 陸蒙, 王珪, 李仲南, 戴原禮, 徐鏊, 沙金, 沈鶴, 胡宗仁, 陸仲遠, 陳立興, 沈以潛, 黃孝子.

#### 仙禪道術

長桑君, 鳳綱, 玄俗, 董奉, 幸靈者, 葛洪, 單道開, 陶弘景, 陸法和, 李筌, 馬湘, 賣藥翁, 日華子, 王懷隱, 許遜, 施岑, 薩守堅, 李嗣, 韓懋.

## 2.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

옛 醫人 224명을 上古聖賢, 儒醫, 明醫, 世醫, 德醫, 仙禪道術, 本國明醫 등의 일곱 부류로 나누어 『醫學入門』과 같은 체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醫學入門』에서 열거한 215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끝에 ‘本國明醫’를 따로 더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다만 다른 것은 새로이 ‘明醫’와 ‘世醫’ 그리고 ‘本國明醫’에 모두 9명을 더 추가하였는데, ‘明醫’는 陳無擇, 宋太宗, 王燾, 李梃, 王璽 등의 5명이고, ‘世醫’는 龔信, 龔廷賢 등의 2명이며, ‘本國明醫’는 楊禮壽, 許浚 등의 2명이다. 그리하여 이들 224명은 각각 上古聖賢 13명, 儒醫 41명, 明醫 103명, 世醫 28명, 德醫 18명, 仙禪道術 19명, 本國明醫 2명이 된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사람들은 『醫學入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한자에 밑줄로 표기된 사람들은 『醫學入門』에는 없지만 『醫林撮要』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표시한 것이다.

#### 上古聖賢

복희씨, 신농씨, 황제씨, 추대계, 기백, 백고, 소유, 귀유구, 유부, 동군, 뇌공, 무함, 이운.

16) 이는 구슬옥 변(玉)에 두루 편(扁)字를 쓴 ‘玉+扁’인데 한글에서 한자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한글로 표기했다.

儒醫

장기, 황보밀, 배위, 범왕, 은중감, 은호, 서희, 저징, 왕현, 서지재, 손사막, 적량공, 왕적, 맹선, 진장기, 허윤중, 허숙미, 정초, 기천석, 양문수, 이유희, 마구주, 유완소, 장원소, 이경사, 이고, 왕호고, 활수, 갈건손, 여복, 주진, 황자후, 주진형, 성인, 주부, 유부, 왕기, 정명우, 진경괴, 유순, 왕륜.

明醫

편작, 순우의, 괄옥, 의완, 의화, 문지, 화타, 기봉, 범구사, 우법개, 임도, 막군석, 장묘, 당신미, 왕숙화, 마사명, 요승원, 요취, 이수, 소원방, 위신, 원주, 왕빙, 陳無擇<sup>17)</sup>, 장정, 장문중, 소병, 양손지, 진사랑, 우지영, 감백중, 손조, 왕찬, 방시, 주굉, 오정소, 허희, 조자화, 진문중, 송도방, 승지연, 황보원, 왕극명, 장예, 학윤, 왕황, 宋太宗<sup>18)</sup>, 양개, 손림, 유원빈, 정약, 장제, 당여정, 반경, 유종주, 승봉진, 주순, 조만, 王燾<sup>19)</sup>, 석장용, 조경, 두임, 두태사, 성무기, 장종정, 나천익, 오서, 직노고, 위역림, 서문중, 왕중광, 갈응녀, 향훈, 조량, 왕이, 주한경, 장이, 진영, 유준도, 오걸, 은부, 한침, 예유덕, 여복, 李梴<sup>20)</sup>, 호중례, 심역, 하언징, 황빈, 육

- 17) 陳言은 南宋의 醫家로서 字가 無擇이다. 그는 病因病理學의 측면에서 후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三因極一病證方論』이 그것이다. 여기에 陳無擇이 삽입된 것은 그의 『三因方』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醫林撮要』에서는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外因六淫, 內因七情, 그리고 不內外因의 病因分類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얘기이다. 즉, 『醫學入門』에서는 이러한 病因分類의 체계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醫林撮要』에서는 李梴의 입장과 陳言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18) 여기서는 明醫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醫人들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에 『醫學入門』에서는 宋太宗이 醫人이 아니므로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醫林撮要』에서는 비록 宋太宗이 醫人은 아니지만 의학을 위한 개인의 업적이 크므로 같이 기재한 것 같다. 그리하여 『東醫寶鑑』에서도 쉽게 『聖惠方』과 『聖濟總錄』을 「歷代醫方」에 첨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19) 王燾(B.C. 670~755)는 唐代의 醫家로서 唐代 以前의 方書를 집대성하여 『外臺秘要』 40卷을 편성하였다. 이는 모두 1104門으로 나뉘어져 있고 醫方 6,000餘方이 실려 있는데, 그는 引用한 각각의 서적의 출처를 모두 附記하고 있어서 唐以前의 의학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고 있다.(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앞의 책, 178쪽, 189쪽) 『醫林撮要』에 王燾가 편입된 것은 그의 『外臺秘要』 때문이다. 물론 醫方을 참고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용서적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醫學入門』에 인용서적의 출전이 불분명하고, 『東醫寶鑑』이 출전을 밝히기를 책의 제목만을 쓰고 있는데 비해, 『醫林撮要』는 『外臺秘要』와 같이 책의 제목과 함께 그 책의 편명까지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인용근거를 보다 확실히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醫林撮要』에서 王燾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삽입이유가 된다할 것이다.
- 20) 李梴이 여기에 삽입된 것은 그의 『醫學入門』 때문이다. 그러나 『醫學入門』이 간행된 때가 1575년이므로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가 삽입되어 간행된 연대는 이보다 뒤가 되어야 한다. 즉, 『醫林撮要』에 「歷代醫學姓氏」가 삽입되어 간행된 연대

언공, 도화, 추복, 응중립, 왕시면, 장지화, 유육, 王璽<sup>21)</sup>, 왕위, 유전비, 우단, 방광, 설기, 정이.

#### 世醫

루호, 서추부, 서도도, 서숙향, 서건, 서천, 서옹, 서지범, 서민제, 저해, 허지장, 허징, 권권, 권입언, 강철, 유한, 장화, 장휘, 서추, 서표, 정명조, 은구, 장무, 축중녕, 고준, 허국정, 龔信, 龔廷賢.

#### 德醫

서문백, 서사백, 전을, 양사영, 유윤방, 오원, 육몽, 왕규, 이중남, 대원례, 서오, 사금, 심학, 호종인, 육중원, 진립홍, 심이잠, 황효자.

#### 仙禪道術

장상군, 봉강, 현속, 동봉, 행령자, 갈홍, 단도개, 도홍경, 육범화, 이진, 마상, 매약옹, 일화자, 왕회은, 허손, 시잠, 살수건, 이형, 한무.

#### 本國明醫<sup>22)</sup>

楊禮壽, 許浚.

### 3. 『東醫寶鑑』의 「歷代醫方」

『東醫寶鑑』에 표시되어 있는 ‘歷代醫方’은 모두 86권이지만, 이들이 모두 참고도

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1) 『醫林撮要』에서는 ‘王璽’의 조에 “本朝人撰醫林集要”라 되어 있고, 『東醫寶鑑』에서는 ‘醫林集要’의 조에 “本朝王璽所撰”이라 되어 있다. 『醫學入門』에 들어있지 않은 이 ‘王璽’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醫林集要』가 어떠한 책인지 알 수 없으나, 『醫林撮要』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東醫寶鑑』에 등장함으로써 『醫學入門』에 의해서가 아니라 『醫林撮要』에 의해서 『東醫寶鑑』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여기서 ‘本國明醫’를 설정한 것이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가 『醫學入門』의 그것과 명확히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 설정된 ‘本國明醫’는 『醫林撮要』의 성격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醫林撮要』의 著述時期가 『東醫寶鑑』에 “醫林撮要 本國內醫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이라 되어 있으므로, 『東醫寶鑑』 보다는 앞선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곳 ‘本國明醫’에는 ‘許浚’이 기록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楊禮壽’도 이 책이 楊禮壽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 조선시대의 謙讓的 미덕을 강조하던 풍조로 보아 자기 스스로 자신을 ‘明醫’로 높이어 얘기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삼입될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本國明醫’에는 楊禮壽도 許浚도 삼입될 수 없는 인물이므로, 여기에 설정된 ‘本國明醫’는 잘못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추정하자면,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이 맞는 것으로 가정할 때, 맨 처음에 『醫林撮要』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本國明醫’가 설정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느 누군가 後人에 의해 삼입된 부분일 것이다.

서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사용된 인용문헌의 모두를 표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표현된 「歷代醫方」은 『東醫寶鑑』이 저술된 시점에 이르기까지 있어왔던 醫方書의 ‘年代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실제 인용문헌은 이보다 많은 180종<sup>23)</sup>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가운데는 『東醫寶鑑』에서 참고문헌으로 쓰이지 않은 醫方書<sup>24)</sup>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歷代醫方」에 보이지 않는 문헌도 내용 중에는 많이 인용되어 있고, 「歷代醫方」은 『醫學入門』이나 『醫林撮要』에 기록되어 있는 「歷代醫學姓氏」의 변형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기에 이미 존재하지 않은 문헌<sup>25)</sup>은 인용할래야 인용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여기에 표시된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실제로 許浚이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를 보고 옮겨 놓다가 잘못 적어서 한 책이 두 책<sup>26)</sup>이 되기도 한 부분이 있어 결국 86권이 아니라 85권이다. 하여간 여기서는 「歷代醫學姓氏」와 비교 및 대조를 위하여 『東醫寶鑑』에 실려있는 「歷代醫方」을 원문 그대로 옮겨 놓는다.

天元玉冊, 本草, 靈樞經, 素問, 採藥對, 採藥別錄, 至教論, 藥性炮灸, 湯液本草, 難經, 傷寒論, 金匱玉函經, 內照圖, 甲乙經, 針經, 范汪方, 脈經, 脈訣, 金匱藥方, 肘後方, 藥對, 集驗方, 外臺秘要, 病源, 千金方, 食療本草, 本草拾遺, 素問註, 玄珠密語, 明堂圖, 本草音義, 古今錄驗方, 本事方, 備用本草經史證類, 本草補遺, 活人書, 神應鍼經, 活幼新書, 脈訣, 醫說, 傷寒指迷論, 小兒方, 直指方, 日華子本草, 三因方, 聖惠方, 聖濟總錄, 宣明論, 原病式, 素問玄機, 明理論, 儒門事親書, 東垣十書, 醫壘元戎, 醫家大法, 湯液本草, 丹溪心法, 玉機微義, 衛生寶鑑, 得效方, 百病鉤玄, 續醫說, 傷寒瑣言, 經驗良方, 婦人良方, 醫學正傳, 醫學權輿, 醫學集成, 丹溪心法附餘, 養生主論, 永類鈴方, 證治要訣, 醫通, 醫林集要, 醫學綱目, 醫學入門, 明醫雜著, 丹溪附餘, 本草集要, 古今醫鑑, 萬病回春, 外科發揮, 醫方集略,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 4. 「歷代醫學姓氏」와 「歷代醫方」

##### 1) 「歷代醫學姓氏」의 著作

23)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81쪽.

24) 예를 들면, 『天元玉冊』이나 『採藥對』와 같은 것들이다.

25) 예를 들면, 『採藥對』, 『採藥別錄』, 『天元玉冊』, 『內照圖』와 같은 것들이다.

26) 예를 들면, 劉完素의 『素問玄機原病式』을 『原病式』과 『素問玄機』로 나눠서 하나의 책을 서로 다른 책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각 醫人들의 저작은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 215명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여기서는 『醫林撮要』를 기초로 하여 『醫學入門』보다 9명이 추가된 224명의 著述을 기재한다.

#### 上古聖賢

伏羲氏(天元玉冊), 神農氏(本草), 黃帝氏(靈樞·素問 內外 18卷), 佶貸季, 岐伯(內經)<sup>27)</sup>, 伯高, 少俞, 鬼臾區, 俞跗, 桐君(採藥對 4卷, 採藥別錄 10卷), 雷公<sup>28)</sup>(至教論, 藥性炮灸 2冊), 巫咸, 伊尹(湯液本草)<sup>29)</sup>.

#### 儒醫

張機(傷寒論<sup>30)31)</sup>, 皇甫謐(甲乙經, 針經), 裴頴, 范汪(著方 100餘卷), 殷仲堪, 殷浩(著 方書), 徐熙, 褚澄(醫論 1裹), 王顯(醫方 35卷), 徐之才(藥對), 孫思邈(千金方 30卷, 脈經 1卷), 狄梁公, 王績(東臯子方?), 孟詵(補養方 3卷, 必效方 3卷, 食療本草), 陳藏器(本草拾遺 10卷), 許胤宗, 許叔微(本事方, 傷寒辨疑), 鄭樵(方書), 紀天錫(註難經 5卷), 楊文修(醫衍 20卷, 地理撥沙經圖), 李惟熙, 麻九疇, 劉完素(運氣要旨論精要, 宣明論, 素問玄機原病式), 張元素, 李慶嗣(傷寒纂類 4卷, 改正活人書 2卷, 傷寒論 3卷, 針經 1卷), 李杲(東垣十書), 王好古(醫壘元戎, 醫家大法, 仲景詳辨, 活人節要歌括, 湯液本草, 此事難知, 斑疹論, 光明論, 標本論, 小兒疳書, 傷寒辨惑論, 守真論, 十二經絡藥圖), 滑壽(素問鈔), 葛乾孫(醫學啓蒙, 經絡十二論,

27) 黃帝氏와 岐伯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서 “靈樞經, 素問(以上 軒轅黃帝 與臣岐伯等 問答而作)”이라 했으므로 결국 『醫林撮要』와 내용상 같다.

28) 雷公(뇌공)에 대해서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 모두 “雷公名敷 黃帝臣也”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雷敷(뇌효)는 南北朝時代의 宋나라의 醫家로써 약물의 炮灸方法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뇌공은 上古時代의 醫家로써 針灸學術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지는 黃帝의 신하로, 『黃帝內經』의 「素問」 가운데 「著至教論」, 「示從容論」, 「疏五過論」, 「徵四失論」 등의 여러 편이 모두 黃帝와 雷公이 醫藥을 논한 체제로 쓰여 있다. 따라서 뇌공과 뇌효는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 모두 “雷公名敷 黃帝臣也”라고 되어 있으므로 『東醫寶鑑』에서 “至教論 藥性炮灸 雷敷所著 黃帝臣也”라 한 것 같다.

29) 여기까지는 『醫學入門』의 상태를 그대로 『醫林撮要』가 따라 轉寫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앞의 두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上古聖賢들의 著書를 위주로 기록하고 그 아래 작은 필체로 著者를 기재하고 있다. 다만 앞의 두 책에서 著書가 없는 경우는 『東醫寶鑑』에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30) 다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하는 사람의 저술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張機’의 경우에서만 유독 다른 사람의 저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즉 “그의 門人인 衛沈이 『四逆三部厥經』과 『婦人胎臟經』, 『小兒顛顛經方』을 撰하였다(其門人衛沈撰四逆三部厥經及婦人胎臟經小兒顛顛經方)”라고 기술하고 있다.

31) 『東醫寶鑑』에서는 「金匱玉函經」을 더 추가하였다.

十藥神書), 呂復, 周眞, 黃子厚, 朱震亨(丹溪心法, 日用纂要, 格致餘論, 局方發揮, 傷寒辨疑, 本草衍義補遺, 外科精要論), 盛寅, 周敷, 劉溥, 汪機(脈訣刊誤 2卷, 內經補註, 本草會編), 程明祐, 陳景魁(五診集), 劉純(傷寒治例, 醫經小學, 玉機微義), 王綸(明醫雜著, 丹溪附餘, 本草集要).

明醫

扁鵲(八十一難經), 淳于意, 郭玉, 醫緩, 醫和, 文摯, 華陀(神農本經, 華陀內照<sup>32)</sup>), 紀朋, 范九思, 于法開, 任度, 莫君錫, 張苗, 唐慎微(備用本草, 經史證類<sup>33)</sup>), 王叔和(脈經, 脈訣), 馬嗣明, 姚僧垣(集驗方 12卷, 行記 3卷), 姚最, 李修(藥方 100卷), 巢元方(病源 50卷), 韋訊, 元珠, 王冰(素問註, 玄珠密語), 陳無擇(三因方), 張鼎(補孟詵食療本草), 張文仲(四時輕重術 凡十八種, 隨身備急方 3卷), 蕭炳(四聲本草), 陳士良(食性本草), 楊損之<sup>34)</sup>(刪繁本草), 于志寧(與李勣修定本草并圖合54篇), 甘伯宗(歷代明醫姓氏 自伏羲至唐 凡一百二十人), 孫兆, 王纂, 龐時<sup>35)</sup>(註難經, 本草補

32) 『東醫寶鑑』에서는 「神農本經」이 없고, 「內照圖」만 기록되어 있다.

33) 『醫學入門』에는 “唐慎微 著備用本草及經史證類”라 되어 있고, 『醫林撮要』에는 “唐慎微 著備用本草及經史症類”라 되어 있고, 『東醫寶鑑』에서는 “備用本草經史證類 宋唐慎微所著”라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備用本草』와 『經史證類』의 두 가지의 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책으로 볼 것인가이다. 만일 각기 다른 책으로 본다면 『備用本草』는 『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를 말함이고 『經史證類』는 『經史證類備急本草』(『證類本草』라 略稱함)를 말함이다. 왜냐하면, 『經史證類本草』의 판본은 여러 가지인데, 唐慎微의 저술인 『經史證類備急本草』(대략 11C末에 撰함)와 이를 艾晟이 陳承의 『本草別說』의 내용을 補入하여 교정한 『經史證類大觀本草』(『大觀本草』라 약칭함. 1108年), 다시 曷孝忠등이 大觀本草를 校正한 『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政和本草』라 약칭함. 1116年), 그리고 王繼先등이 『大觀本草』를 校訂하고 다시 약간의 知見을 가한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紹興本草』라 약칭함. 1159年)가 그것이다(李尙仁, 本草學, 12~15쪽, 修書院, 1981. 참조). 따라서 여기서 『備用本草』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밖에 없으며, 『經史證類』는 唐慎微의 저작이라면 『經史證類備急本草』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같은 책으로 본다면 당연히 唐慎微의 저작은 『經史證類備急本草』가 되어야 한다. 이상의 책들이 사실상 여러 간행본에 따라 책이름이 바뀌었으나 내용상 큰 改變이 없었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經史證類本草』라 해야 할 것이고, 唐慎微의 대표저작으로 따진다면 『經史證類備急本草』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李梴은 「備用本草」와 「經史證類」의 두 가지 다른 책으로 본 것 같고, 楊禮壽는 이를 그대로 模寫하면서도 ‘證’을 ‘症’으로 誤寫한 것으로 보이며, 許浚은 이를 다시 옮겨 적으면서 잘못된 ‘症’을 ‘證’으로 바로 잡았지만, 결국 「經史證類備急本草」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李梴과 楊禮壽는 이 책에 대하여 실제로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許浚은 이 책이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 제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34) 陳士良과 楊損之는 『醫學入門』과 그 위치한 차례가 서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으므로 『醫林撮要』의 순서를 따라 陳士良·楊損之의 순서로 기재한다.

35)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 모두 ‘龐時’라고 저자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본명은

遺), 朱肱(活人書), 吳廷紹, 許希(神應鍼經要訣<sup>36</sup>), 趙自化(四時養頤錄<sup>37</sup>), 名醫顯帙傳 3卷), 陳文仲(活幼新書<sup>38</sup>), 小兒病源方論 1卷), 宋道方, 僧智緣, 皇甫垣<sup>39</sup>(丹

‘龐安時’이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는 ‘龐安常’이라고 밝히고 있다. ‘安常’은 龐安時的 ‘字’이다. 비록 이름에 착오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모두 龐安時的 『本草補遺』임엔 틀림없으므로 同一人의 同一著書로 간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서는 上古時代를 제외하면 모두 본명을 쓰고 있는데, ‘龐安時’만은 유일하게 본명을 쓰지 않고 그의 ‘字’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 본명인 ‘龐安時’가 아니라 ‘龐時’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을 수정하여 쓰기 위하여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龐安時’라는 본명을 쓰지 않고 왜 하필 字인 ‘龐安常’이라 했을까? 다른 곳에서는 본명을 쓰고 字나 號를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字를 본명처럼 쓴 것은 어찌면 ‘龐時’라는 이름이 틀렸다는 것은 알았지만 본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許浚이 『東醫寶鑑』을 만들 당시에 『本草補遺』를 접하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된다. 이처럼 許浚이 『本草補遺』를 접했다면 분명히 ‘龐安時’라 했을 것인데도 ‘龐安常’이라고 한 것을 보면, 許浚이 『東醫寶鑑』에 「歷代醫方」을 쓸 당시에는 『醫林撮要』를 기본으로 참고하였거나, 적어도 『醫學入門』을 참고하였다는 얘기가 된다.

- 36) 『東醫寶鑑』에는 ‘神應鍼經’이라 되어 있고, ‘要訣’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
- 37) 『東醫寶鑑』에 趙自化는 찬술한 醫方書가 있음에도 빠져 있다. 『東醫寶鑑』에는 養生書들이 많이 참고되고 있어 약 24종이나 되는데, 특히 趙自化의 『四時養頤錄』은 飲食療法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養生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다고 보여지는 許浚으로서도 당연히 참고하였을 법한데도 인용문헌으로서도 「歷代醫方」에서도 빠져 있음은 이 당시에 이 책을 볼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만일 이 당시에 許浚이 참고할 수 없었다면 『醫林撮要』에서도 기록될 수가 없겠으나, 『醫林撮要』에 기재되었던 것은 『醫學入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옮겨 놓은 것 같다.
- 38) 『醫學入門』의 陳文中조에 “鄭惠卿同編活幼新書又著小兒病源方論一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醫林撮要』에서는 똑같이 기재하고 있으나 다만 사람의 이름이 ‘陳文中’에서 ‘陳文仲’으로 바뀌었고, ‘小兒病源方論’을 ‘小兒病原方論’이라고 하여 ‘源’자를 ‘原’이라 誤記하였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는 鄭惠卿과 같이 편찬한 『活幼新書』를 ‘宋陳文中所著’라고 하여 『醫林撮要』에서 잘못 쓰여진 ‘陳文仲’의 이름을 『醫學入門』의 본래대로 ‘陳文中’이라고 바로잡아 놓았지만, 마치 『活幼新書』가 陳文中 혼자 독자적으로 쓰여진 것처럼 되어 버렸다. 게다가 陳文中의 저서로 『小兒病源方論』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鄭惠卿과의 共著인 『活幼新書』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 申東源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과연 引用文獻을 적은 것인가?(한국보건의사학회지, 제3권, 제1호, 15쪽, 1995)”에서 “『醫林撮要』는 『活幼新書』라는 책이 宋 때의 陳文中이 지었다고 하였는데, 『醫學入門』에는 그것이 陳文中의 『幼幼新書』”로 써어 있다고 했다. 이것은 誤謬이다. 왜냐하면 『醫學入門』의 ‘陳文中’조에 『幼幼新書』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醫學入門』이나 『醫林撮要』나 『東醫寶鑑』이나 모두 『活幼新書』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더욱 커다란 오류로 증폭되기 때문에 고증의 측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즉, 같은 쪽에 실려있는 申東源의 얘기를 좀더 검토해 보면, “陳文中의 『活幼新書』는 「歷代醫方」의 고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원래 陳文中의 『活幼新書』는 『幼幼新書』가 맞고, 또한 이 책의 저자는 陳文中이 아닌 宋대의 劉昉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東醫寶鑑』은 저자와 책명 모두 오류를 범한 셈이 된다. 만일 『東醫寶鑑』이 이천의 그것을 인용했다면, 적어도 책명의 오류는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의 직접적

經 萬卷?), 王克明, 張銳, 郝允, 王貺(全生指迷論), 宋太宗(聖惠方, 聖濟總錄), 楊介(存眞圖), 孫琳, 劉元賓(脈訣), 程約(醫方圖說), 張濟, 唐與正, 潘璟, 劉從周(著書 10篇), 僧奉眞, 周順, 趙巒, 王燾(外臺秘要), 石藏用, 趙卿, 杜任, 竇太師(標由論), 成無己(傷寒論註 10卷, 明理論 3卷, 論方 1卷), 張從政<sup>40)</sup>(六門三法<sup>41)</sup>), 羅天益<sup>42)</sup>(衛生寶鑑, 藥誤永鑑, 藥類法象), 吳恕(傷寒指掌圖), 直魯古(脈訣, 針灸書), 危亦林(世醫得效方<sup>43)</sup> 19卷), 徐文中, 王仲光, 葛應雷(醫學會同 20卷), 項昕(脾胃論<sup>44)</sup>), 趙良(醫學宗旨, 金匱方衍義), 王履(溯洄集, 百病鉤玄, 醫學韻統), 周漢卿, 張頤, 錢瑛, 劉遵道, 吳傑, 殷傅, 汗忱(折肱錄), 倪維德(醫說<sup>45)</sup>), 原機啓微), 呂復, 李梴(醫學入門), 胡重禮, 沈繹, 何彥徵, 黃斌, 陸彥功(傷寒類證便覽 10卷), 陶華(傷寒瑣言), 鄒福(經驗良方), 熊宗立(註解難經, 脈訣, 藥性賦補遺集, 婦人良方), 王時勉, 張至和, 劉毓, 王璽(醫林集要), 汪渭, 劉全備(編註病機, 編註藥性), 虞搏(醫學正傳, 醫學權輿, 醫學集成), 方廣(丹溪心法附餘, 藥性書, 傷寒書), 薛己(外科樞要<sup>46)</sup>), 程伊(醫林史傳, 外傳拾遺).

인 출처는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라 여겨진다.”라고 되어 있다.

- 39) 원래 이름이 ‘皇甫坦(황보탄)’인데, 『醫學入門』에서 ‘皇甫垣(황보원)’이라고 誤記한 것을 『醫林撮要』에서 그대로 轉寫하여 똑같이 ‘皇甫垣’이라고 誤記하고 있다.
- 40) ‘張從政’은 ‘張從正’라고 하여야 옳다. 그러나 『醫學入門』, 『醫林撮要』, 『東醫寶鑑』에서 모두 ‘張從政’이라 함으로써, 이름의 ‘正’을 ‘政’이라 하였으니, 최초의 『醫學入門』에서의 誤記가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 41) ‘六門三法’은 책이름이 아니라 『儒門事親』의 내용상 이론이다. ‘六門’이란 天의 邪인 六淫을 얘기하고 ‘三法’이란 汗·吐·下의 三法을 말한다. 나중에 麻知幾 등이 그의 의학이론과 경험을 정리하고 增訂하여 『儒門事親』 40卷을 編成하였다(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258쪽). 그러나,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는 張從政의 宗에서 “著六門三法”이라 하였는데, 『東醫寶鑑』에서는 “儒門事親書 金張從政所著”라 표기하였다. 따라서, 『醫學入門』에서의 잘못을 『醫林撮要』는 그대로 옮겨 놓았고, 『東醫寶鑑』에서는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 42) 이름은 羅天益이고 字가 謙甫이나,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衛生寶鑑』의 宗에서 “元羅謙甫所著字益之”라하여, 본명과 字를 混用하였고 字는 ‘益之’라고 誤記하였다.
- 43) 『東醫寶鑑』에서는 ‘世醫’를 빼고 ‘得效方’이라고 하였다.
- 44) 李東垣의 『脾胃論』과는 다르다. 李東垣의 『脾胃論』이 갖추지 못한 점을 보충한 것이다. 그래서 “作脾胃論 以補東垣未備”라고 뒤이어 설명하고 있다.
- 45)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續醫說』이라 하고, “世醫”에 있는 宋代의 張擴의 저작은 『醫說』이라 하였다. 이것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이 시대적 순차를 따라 작성되어 있으므로 明나라 초기에 해당하는 倪維德의 『醫說』을 宋나라 때의 張擴의 『醫說』과 구분하기 위하여 『續醫說』이라 한 것 같다.
- 46) 『外科樞要』는 1571년에 간행된 薛己의 著作으로 瘡瘍에 관하여 病證과 治方에 관하여 씩어져 있는데,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는 모두 『外科樞要』를 기록하고 있으나,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1528년에 간행된 『外科發揮』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許浚이 『東醫寶鑑』을 만들 당시에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外科發揮』를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外科樞要』는 ‘瘡瘍’에

## 世醫

樓護, 徐秋夫, 徐道度, 徐叔嚮, 徐寔, 徐踐, 徐雄, 徐之範, 徐敏齊, 褚該, 許智藏, 許澄, 甄權(脈經, 針方, 明堂圖), 甄立言(本草音義 10卷, 古今錄驗方 50卷), 江哲, 劉翰(經用方書 30卷, 論候 10卷), 張擴(醫說), 張揮, 徐樞, 徐彪, 程明助, 殷渠, 蔣武, 祝仲寧, 顧俊, 許國禎, 龔信(古今醫鑑 8卷), 龔廷賢(萬病回春 8卷, 種杏仙方).

## 德醫

徐文伯, 徐嗣伯, 錢乙(傷寒指迷論 5卷, 嬰兒百篇<sup>47)</sup>), 楊士瀛(仁齊直指), 劉潤芳, 吳源, 陸蒙, 王珪(泰定養生主論<sup>48)</sup>), 李仲南(永類鈴方), 戴原禮(證治要訣), 徐鏊, 沙金, 沈鶴, 胡宗仁, 陸仲遠, 陳立興, 沈以潛, 黃孝子.

## 仙禪道術

長桑君, 鳳綱, 玄俗, 董奉, 幸靈者, 葛洪(金匱藥方, 肘後救卒方, 備急方), 單道開, 陶弘景(本草效驗方註, 肘後百一方, 陸法和, 李筌, 馬湘, 賣藥翁, 日華子(諸家本草), 王懷隱(元陳師文同著太平聖惠方), 許遜, 施岑, 薩守堅, 李詞, 韓懋(醫通 2卷).

## 本國明醫

楊禮壽(醫林撮要 8卷), 許浚(東醫寶鑑 15卷, 診解痘瘡集 1卷, 診解胎產集 1권, 診解救急方 1卷, 新纂辟瘟方 1卷).

## 2) 「歷代醫方」의 著者

天元玉冊(伏羲氏), 本草(神農氏), 靈樞經, 素問(以上 軒轅黃帝 與臣岐伯等 問答而作), 採藥對, 採藥別錄(以上 桐君), 至教論, 藥性炮灸(以上 雷斅), 湯液本草(伊尹), 難經(扁鵲), 傷寒論, 金匱玉函經(以上 張機), 內照圖(華佗<sup>49)</sup>), 甲乙經, 針經(以上 皇甫謐), 范汪方(范汪), 脈經, 脈訣(王叔和), 金匱藥方, 肘後方<sup>50)</sup>(以上 葛洪), 藥對

관한 전문적 醫書라면, 『外科發揮』는 ‘瘡瘍’ 뿐만 아니라 腫瘍, 潰瘍, 發背, 腦疽, 肺癰, 肺痿, 癰癤, 楊梅瘡 등 31종류의 外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47)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는 모두 『嬰兒百篇』이라 했는데, 아마도 錢乙의 著作으로 1119년에 간행된 『小兒藥證直訣』을 말하는 것 같고, 이를 『東醫寶鑑』에서 『小兒方』이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錢乙의 다른 著作으로는 『傷寒指迷論』(이를 洪元植의 『中國醫學史』 167쪽에서는 『傷寒指要』라 함) 이외는 없기 때문이다.

48) 『東醫寶鑑』에서는 ‘泰定’이란 말이 빠지고 ‘養生主論’이라고만 되어 있다.

49) 화타는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 ‘華佗’로 잘못 되어 있고, 『東醫寶鑑』에서 ‘華佗’라고 옳게 수정하였다.

50)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는 ‘肘後救卒方’이라 되어 있다.

(徐之才), 集驗方(姚僧垣), 外臺秘要(王燾), 病源(巢元方), 千金方(孫思邈), 食療本草(孟詵), 本草拾遺(陳藏器), 素問註, 玄珠密語(以上 王冰), 明堂圖(甄權), 本草音義, 古今錄驗方(以上 甄立言), 本事方(許叔微), 備用本草經史證類(唐慎微), 本草補遺(龐安常<sup>51)</sup>), 活人書(朱肱), 神應鍼經(許希), 活幼新書(陳文中), 脈訣(劉元賓), 醫說(張擴), 傷寒指迷論, 小兒方(以上 錢乙), 直指方(楊士瀛), 日華子本草(宋人所著 不書姓名<sup>52)</sup>), 三因方(陳無擇), 聖惠方, 聖濟總錄(以上 宋太宗令 諸太醫撰集)<sup>53)</sup>, 宣明論, 原病式, 素問玄機(以上 劉完素)<sup>54)</sup>, 明理論(成無己), 儒門事親書(張

- 51) 특이하게 『東醫寶鑑』에서는 『本草補遺』를 소개하는 중에 저자의 본명을 쓰지 않고 字인 ‘龐安常’을 마치 이름인 것처럼 쓰고 있다. 아마도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 본명인 ‘龐安時’가 아니라 ‘龐時’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을 수정하여 쓰기 위하여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龐安時’라는 본명을 쓰지 않고 왜 하필 字인 ‘龐安常’이라 했을까? 다른 곳에서는 본명을 쓰고 字나 號를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字를 본명처럼 쓴 것은 어쩌면 ‘龐時’라는 이름이 틀렸다는 것은 알았지만 본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許浚이 『東醫寶鑑』을 만들 당시에 『本草補遺』를 접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52) 著作者가 불분명한 경우는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 모두 3군데인데, 『日華子本草』와 『醫學綱目』, 그리고 『醫方集略』이다. 日華子は 北宋의 掌禹錫이 『開寶本草』를 원본으로 하고 諸家本草를 참조하여 1057년 『嘉祐補注神農本草』 20卷을 撰成하면서 『日華子本草』를 “開寶年間に 四明人이 撰했는데, 姓氏를 적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四明(지금의 浙江省 鄞縣)人이 中明人으로 바뀌어 “宋開寶中明人不著姓氏(宋나라 開寶年間の 中明 땅의 사람인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 한 것을 『東醫寶鑑』에서도 그대로 따라 “日華子本草 宋人所著不書姓名”이라 했다.
- 53) 宋나라의 徽宗에 의하여 撰集된 것으로는 『聖濟總錄』(또는 『政和聖濟總錄』이라고도 함) 뿐이다. 1111~1117년(政和年間)에 간행된 『聖濟總錄』은 歷代醫籍을 搜集하고, 아울러 民間 經驗方 및 醫家の 獻方을 徵集하여 整理 滙編한 것(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掲書, 123쪽)이다. 또한 『聖惠方』은 『太平聖惠方』의 簡稱으로써 992년에 北宋의 王懷隱 등에 의해 간행된 것(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掲書, 320쪽)이므로, 992년은 宋太宗 17년인 淳化 3년이다. 따라서, 『聖濟總錄』을 중심으로 본다면 ‘宋太宗’이 아니라 ‘宋徽宗’이라 해야 할 것이고, 『聖惠方』을 중심으로 본다면 ‘王懷隱’이라 해야 할 것이며, ‘宋太宗’을 부각시켜 보려면 차라리 『聖惠方』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책명과 저자는 모두가 오류이다. 아마도 이것은 『醫林撮要』에서 저지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轉寫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보인다. 『醫學入門』에는 보이지 않는 ‘宋太宗’이 『醫林撮要』에 “宋太宗 令諸太醫 撰聖惠方 聖濟總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東醫寶鑑』에 “聖惠方 聖濟總錄 以上 宋太宗令 諸太醫撰集”이라고 그대로 실려있는 것으로 보면,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분명히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를 모태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4)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는 모두 똑같이 “撰運氣要旨論精要宣明論素問玄機原病式”라고 되어 있어서 “「運氣要旨論精要」, 「宣明論」, 「素問玄機原病式」을 撰하다.”임을 알 수 있겠으나, 『東醫寶鑑』에서는 「運氣要旨論精要」를 빼고 “「宣明論」, 「原病式」, 「素問玄機」 以上金劉完素所著”로 기록하고 있어서 許浚은 「素問玄機」와 「原病式」을 각기 다른 책인 것으로 본 것 같다. 따라서 許浚은 『素問玄機原病式』이 劉完素가 『黃帝內經 素問』의 「至眞要大論」에서 ‘病機十九條’를 정리하

從政), 東垣十書(李杲), 醫壘元戎, 醫家大法, 湯液本草(以上 王好古), 丹溪心法(朱震亨), 玉機微義(劉純), 衛生寶鑑(羅謙甫), 得效方(危亦林), 百病鉤玄(王履), 續醫說(倪維德), 傷寒瑣言(陶華), 經驗良方(鄒福), 婦人良方(熊宗立), 醫學正傳, 醫學權輿, 醫學集成(以上 虞搏), 丹溪心法附餘(方廣), 養生主論(王珪), 永類鈴方(李仲南), 證治要訣(戴原禮), 醫通(韓懋), 醫林集要(王璽), 醫學綱目(本朝人所撰<sup>55)</sup>), 醫學入門(李梴), 明醫雜著, 丹溪附餘, 本草集要(以上 王綸), 古今醫鑑, 萬病回春(以上 龔信<sup>56)</sup>), 外科發揮(薛己), 醫方集略(本朝人所著<sup>57)</sup>), 醫方類聚, 鄉藥集成方(以上 本國祖宗朝 命文官醫官撰集), 醫林撮要(本國內醫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sup>58)</sup>).

여 歸納시킨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 55) 『醫學綱目』은 樓英이 嘉靖 44년(1565)에撰한 것으로, 그보다 10년 뒤에 이루어진 『醫學入門』이나 『醫林撮要』에는 들어있지 아니하고 『東醫寶鑑』에만 “醫學綱目 本朝人所撰”이라고 실려 있는데, 이로 보면 許浚은 『醫學綱目』의 저자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東醫寶鑑』의 내용 중에 ‘綱目’으로 표기된 인용서적은 원래 인용되었던 1차 인용서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1차 인용문이 아닌 2차 인용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56) 龔信은 龔廷賢의 아버지인데, 그가 『古今醫鑑』을 著撰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의 완성은 오히려 그 아들 龔廷賢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나누어 구분하자면 『古今醫鑑』은 그 아버지인 龔信의 著作으로 한다면 할지라도 그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萬病回春』은 龔廷賢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태여 합하여 놓는다면 『古今醫鑑』도 아들인 龔廷賢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古今醫鑑』과 『萬病回春』 모두가 龔廷賢의 著作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 이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의 모두를 아버지인 龔信의 著作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 두 父子를 한 사람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醫學入門』에 이 두 父子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醫林撮要』에서 분명히 두 사람을 나누어 각기 저서를 표기했음을 생각할 때, 許浚은 이를 『醫學入門』에 의해서 표기한 것이 아니고 『醫林撮要』를 근거로 표기했을 것이나, 『醫林撮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수정해서 표기했을 것이다.
- 57) 『醫學入門』이나 『醫林撮要』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만 소개되어 있다. 『醫方集略』은 郭鑑이 古方을 수집하고 당시 醫生의 醫案과 秘方을 滙集해서 1545년에 編성한 것(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16쪽)인데, 여기서 郭鑑이란 인물이 소개되지 않고 “本朝人所著”라 한 것은 許浚이 이 책을 보기도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음은 없으므로 당시에 許浚이 이 책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러나 『東醫寶鑑』의 본문 중에 “集略”이라고 22군데나 인용(崔秀漢, 朝鮮醫籍通考, 77쪽)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底本으로 삼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이것은 『醫方集略』의 1차 인용서적이 아니라 2차 인용서적일 가능성이 짙다.
- 58) 이 부분이 바로 『東醫寶鑑』이 『醫林撮要』를 참고하였다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東醫寶鑑』의 본문 중에는 『醫林撮要』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며, 앞서 밝혔듯이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 가운데 ‘本國明醫’로 許浚을 소개하고 『東醫寶鑑』을 그의 저서로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醫林撮要』의 본문 중에도 『東醫寶鑑』을 인용한 부분이 없으므로, 거꾸로 『醫林撮要』가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論者는 『醫林撮要』의 판본 자체가 ‘8권 본’과 ‘13권 본’이 있으므로, 이

5.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 나타난 「歷代醫學姓氏」의 差異點

『醫學入門』과 『醫林撮要』에 나타난 「歷代醫學姓氏」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나 구성체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식이다. 따라서, 『醫林撮要』는 『醫學入門』의 양식을 거의 똑같이 轉寫한 것일 뿐이다. 다만 『醫林撮要』는 『醫學入門』의 체제에 ‘本國明醫’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였고, ‘明醫’와 ‘世醫’ 그리고 ‘本國明醫’에 모두 9명을 더 추가하였는데, ‘明醫’는 陳無擇, 宋太宗, 王燾, 李梃, 王璽 등의 5명이고, ‘世醫’는 龔信, 龔廷賢 등의 2명이며, ‘本國明醫’는 楊禮壽, 許浚 등의 2명이다. 그리하여 이들 224명은 각각 上古聖賢 13명, 儒醫 41명, 明醫 103명, 世醫 28명, 德醫 18명, 仙禪道術 19명, 本國明醫 2명이 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醫林撮要』에 추가된 醫人과 著作 그리고 『東醫寶鑑』에 추가된 醫人과 著作만 표기하였다.

---

두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東醫寶鑑』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東醫寶鑑』에 “本國內醫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이라 되어 있고, 『醫林撮要』의 ‘13권 본’에 “弘農後人 退思翁撰”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許浚은 『東醫寶鑑』을 지을 당시에 ‘8권 본’인 ‘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의 『醫林撮要』를 참고했으리라 여겨진다.



	醫學入門	醫林撮要		東醫寶鑑	
醫人數	215명	224명	備考	64명	備考
項目分類	上古聖賢(13명) 儒醫(41명) 明醫(98명) 世醫(26명) 德醫(18명) 仙禪道術(19명)	上古聖賢(13명) 儒醫(41명) 明醫(103명) 世醫(28명) 德醫(18명) 仙禪道術(19명) 本國明醫(2명)	明醫(5명) 世醫(2명) 本國明醫(2명) 등 모두 9명 추가	上古聖賢(7명) 儒醫(14명) 明醫(29명) 世醫(4명) 德醫(4명) 仙禪道術(2명) 本國明醫(1명) 기타추가(3명)	醫林撮要에 서 삭제 163 명 추가 3명 추가된 저작 7권
<p>* 『醫學入門』에는 없으나 『醫林撮要』에 추가된 醫人과 著作</p> <p>明醫 ; 陳無擇(三因方), 宋太宗(聖惠方, 聖濟總錄), 王燾(外臺秘要), 李梴(醫學入門), 王璽(醫林集要) 등 5人.</p> <p>世醫 ; 龔信(古今醫鑑 8卷), 龔廷賢(萬病回春 8권, 種杏仙方) 등 2人.</p> <p>本國明醫 ; 楊禮壽(醫林撮要 8卷), 許浚(東醫寶鑑 15卷, 診解痘瘡集 1卷, 診解胎產集 1권, 診解救急方 1卷, 新纂辟瘟方 1卷) 등 2人.</p> <p>* 『醫林撮要』에는 없으나 『東醫寶鑑』에 추가된 醫人과 著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著作만 추가된 것 ; 金匱玉函經(張機), 小兒方(錢乙), 外科發揮(薛己) 등 3卷.</li> <li>· 醫人과 著作이 모두 추가된 것 ; 醫學綱目(本朝人, 樓英), 醫方集略(本朝人, 郭鑑),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등 4卷</li> <li>· 醫人만 추가된 것 ; 醫林撮要(鄭敬先)</li> </ul>					

여기서 『醫林撮要』에 醫人과 著作이 추가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陳無擇’은 ‘陳言’의 字名이며 南宋의 醫家로서, 病因病理學的인 측면에서 복잡한 질병을 病源에 따라 ‘內因·外因·不內外因’의 三大類로 분류하여 논술한 『三因極一病證方論』의 著者<sup>59)</sup>이다. 따라서 『醫林撮要』에서는 이러한 病因分類의 체계를 중요시함으로써 여기에 추가했을 것 같다. 이 점은 『東醫寶鑑』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또한 宋太宗은 『聖濟總錄』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聖濟總錄』은 宋代 徽宗 때에 간행되어 歷代醫籍과 諸家の 治方 2만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서 참고할 가치가 많으므로 별도로 추가되었을 것이다. 王燾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外臺秘要』의 논술에 있어서의 명확한 근거설정이 『醫林撮要』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것이므로 여기에 수록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王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李梴과 龔信 그리고 龔廷賢은 李梴의 『醫學入門』에 수록되지 않은 당대의 사람이므로 따로 추가하여 기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5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위의 책, 300쪽.

된다. 아울러 우리 나라도 明醫가 있으므로 당연히 당시에 기재되어야 할 明醫가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著者인 당사자가 기록되었고 『醫林撮要』 보다 나중에 나온 『東醫寶鑑』이 소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醫林撮要』의 ‘本國明醫’는 아마도 後人에 의해 보충된 것이고 『醫林撮要』 原刊本인 8卷本에는 없었던 것 같다.

6.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과의 비교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를 비교해 보면,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순서대로 醫方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著作者의 이름을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외에 이렇게 정리하기 위하여, 앞의 도표에서 보듯이, 『東醫寶鑑』은 『醫林撮要』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몇 가지 著作을 추가하였다.

먼저 추가된 항목은 ① 著作만 추가된 것과 ② 醫人과 著作이 모두 추가된 것, ③ 醫人만 추가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로 著作만 추가된 것으로는 『金匱玉函經』(張機), 『小兒方』(錢乙), 『外科發揮』(薛己) 등의 3卷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이 추가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張機의 ‘傷寒論’은 원래 『傷寒雜病論』이 있으나, 이를 後人들이 『傷寒論』 및 『金匱要略』의 두 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金匱玉函經』은 『傷寒論』의 古傳本의 하나로써 1066년에 北宋 校正醫書局的 校定을 거쳐서 宋本의 『傷寒論』과 同時에 간행된 것이다. 아마도 이 때의 刊本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張機의 『傷寒論』과 함께 『金匱玉函經』을 삽입한 것 같다. 다음, 錢乙의 『小兒方』은 아마도 『醫林撮要』에서 『嬰兒百篇』이라 하였으므로, 원래의 著作인 『小兒藥證直訣』을 『小兒方』이라 고쳐 말한 것 같다. 薛己의 『外科發揮』는 조선중기의 의학적 발전을 보아 壬辰倭亂과 같은 시대적 요청이 外科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증대하게 한 때이므로 비록 『醫林撮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醫人과 著作이 모두 추가된 것으로는 『醫學綱目』(本朝人, 樓英), 『醫方集略』(本朝人, 郭鑑),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등의 4卷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추가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시기적으로 『醫學入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醫林撮要』에는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역시 시기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거나 『醫學入門』을 모태로 삼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일 수도 있겠다. 『東醫寶鑑』에서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때이므로 『醫學綱目』이 추가되었을 것이며,

『醫方集略』은 그것이 1545년에 편성될 당시에 각 醫生의 醫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 같다. 또한 나머지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은 우리 나라에서 나온 중요 醫書이자 그 때까지의 가장 많은 醫方書를 담고 있으므로 당연히 추가되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醫人만 추가된 것으로는 『醫林撮要』(鄭敬先)의 하나 뿐이다. 이것이 추가된 이유는 『東醫寶鑑』이 만들어질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더구나 『東醫寶鑑』의 편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었을 뿐인 것 같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 추가된 著作은 모두 7卷이며, 추가된 醫人은 모두 3名이다.

또한,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서 삭제된 부분을 보면, ‘上古聖賢’에서 6명, ‘儒醫’에서 27명, ‘明醫’에서 74명, ‘世醫’에서 28명, ‘德醫’에서 14명, ‘仙禪道術’에서 17명 등 모두 166명이 삭제되었다. 이들이 삭제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그 醫人의 著作이 없으면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東醫寶鑑』은 「歷代醫學姓氏」가 중심이 아니라 「歷代醫方」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엮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무리한 삭제로 ‘醫方’ 중심체제의 의미는 살렸으나 ‘歷代’의 의미는 잃어버린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張元素의 경우에 비록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著作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李時珍이 “『靈樞』·『素問』 이후의 第一人者”라고 찬양할 만큼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며, 그의 저작으로 『醫學啓源』·『珍珠囊』·『臟腑標本藥式』·『藥注難經』 등이 있으므로 한두 권쯤은 실었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로, 책이름이 없고 단지 “著方”이나 “著方書” 등으로 표기되는 사람의 것은 제외시켰다. 이것 또한 ‘醫方’이 중심이 되는 체제에서 분명한 책이름이 아닌 것을 제외시키는 당연하다 하겠다. 다만, 范汪은 『醫林撮要』에 “著方 百餘卷”이라 되어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范汪方”이라 표기하였다. 이는 아마도 불분명한 “著方”들의 대표적인 의미에서 두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세 번째로, 著作이 있다하더라도 ‘醫方書’가 아닌 경우는 제외시켰다. 예를 들면, 楊文修의 경우는 비록 著作이 있지만, 그것이 『地理撥沙經圖』이므로 ‘醫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삭제시켰다. 네 번째로 비록 ‘醫方書’의 著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다른 사람의 저작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시켰다. 예를 들면, 滑壽의 『素問鈔』은 『醫林撮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미 上古聖賢의 黃帝氏에 『素問』과 『靈樞』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 버렸다. 다섯 번째로 각 醫家의 著作이 너무 많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대표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는 제외시켰다.

### III. 結論

이상의 『醫林撮要』에 나타난 「歷代醫學姓氏」를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 및 『東醫寶鑑』의 「歷代醫方」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醫林撮要』는 初刊本の 8권 본과 나중에 간행된 13권 본이 있었으나, 『東醫寶鑑』에 영향을 준 것은 초간본인 8권 본이다.
2.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는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즉, ‘上古聖賢·儒醫·明醫·世醫·德醫·仙禪道術’의 내용에다 ‘本國明醫’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明醫’에 대하여 긍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13권 본의 『醫林撮要』에 추가된 것이고, 초간본의 8권 본에는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3.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는 『醫學入門』의 그것을 모태로 하여 새롭게 주요 醫人과 醫籍을 추가하였다. 이 가운데 唐代에 만들어진 王燾의 『外臺秘要』는 『醫林撮要』를 구성함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宋代에 만들어진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은 『醫林撮要』의 病因分類의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4.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는 비록 『醫學入門』의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諸家の 업적과 歷代醫籍을 기록하고 있어서 후세에 본받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을 위시하여 우리나라의 醫學史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IV. 參考文獻

1. 楊禮壽, 『醫林撮要』, 韓國醫學大系, 8·9·10권, 驪江出版社, 1988, 서울.
2. 李尙仁, 『本草學』, 修書院, 1981, 서울.
3. 丁若鏞, 『麻科會通』, 韓國醫學大系, 36권, 驪江出版社, 1988, 서울.

4. 王冰 註釋, 『黃帝內經 素問』, 臺灣中華書局, 民國 61년(1972), 臺北.
5. 李經緯, 『中醫人物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8, 上海.
6. 李 梴, 『原本 編註醫學入門』, 內局重校 戊寅改刊版, 1818年 刊版, 南山堂, 1985, 서울.
7.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서울.
8.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9.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室, 1987, 서울.
10. 申東源,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과연 引用文獻을 적은 것인가?”, 한국보건의과학회지, 제3권, 제1호, 1995, 서울.
1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서울.
12. 琵 巖, 『朝鮮人名辭書』,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7, 京城.
13.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昭和 48년(1973), 大阪.
14. 三木榮, 『朝鮮醫學史 及 疾病史』, 自家出版, 昭和 38년(1963), 大阪.
15. 韓國出版研究所編, 『人物韓國의 歷史』, 信和出版社, 1974, 서울.
16.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楊禮壽 逝去 400주년기념 學術 발표논문, 韓國醫史學會, 2000, 서울.